

해양의 위험담론과 생활방식의 권리*

안미정**

국문요약

이 글은 해양의 위험담론을 넘어서 어로 사회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해양문화에서 어로의 위험성은 어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와 동기를 설명하는 준거로서 기능해 왔으나 어민들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규칙과 권리들을 그들의 어로조직과 문화적 장치들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제주도의 잠수(潛嫂)들은 시장경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나 자율적 자원 관리를 통해 지속적 자원의 재생산 및 지속적 어로를 꾀하고 있으며, 토우시(答志)의 어부들은 어로조직을 다양화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또 다양한 어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잠수들은 의례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을 해신의 자손으로 추상화 하여 어업의 지속적 권리를 상징화 하고, 또 씨앗을 뿌림으로써 풍요에 대한 실천적 행위를 연행한다. 그리고 토우시의 어부들은 네야코(寢室子)라는 관습을 통해 마을 청년들을 돌보는 문화를 창조해 왔다. 이러한 어민 사회의 문화는 가족과 친족 제도에 바탕하고 있는 문화적 논리를 보여주고

* 이 논문은 2010년 제주학회 제35차 학술대회(2010.11.19,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세심히 논문을 검토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있다. 문화적 전통이 외부 변화에 의해 기존 방식이 바뀌거나 강제되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주민들의 문화적 권리이다.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은 문화적 자산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생활 세계를 창조해 가는 생활방식의 권리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해양 어로, 위험담론, 제주 잠수(潛嫗), 문화적 전통, 생활방식, 문화적 권리

I. 머리말

해양생태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어민들의 생활세계는 자연환경을 ‘읽어 온’ 축적된 지식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어로방식도 이러한 지식이 체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 가는 것은 곧 어민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해양)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그런데 해양과 관계를 맺어 온 어로민들의 구체적 생활세계와는 별도로 해양세계를 둘러싼 여러 담론들과 재현된 이미지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 또한 해양세계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세계를 둘러싸고 구축된 담론과 이미지들은 실제성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보편적 해양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바다’라는 말에는 인지적 구성물로서 바다와 실제의 바다가 온전히 동일한 개념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하나의 바다라 하더라도 이에 투영된 시선 속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으며 인간의 사유 능력은 보다 다양한 상징

물들을 재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적 사유와 다르게 바다는 사회경제적 공간으로서 어민들의 생활세계 속에 자리하는 주요 토대로서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일면 이 같은 관념과 실재는 서로 불가분한 것이지만 그 간극은 항상 존재한다. 때문에 해양문화라는 층칭 속에서 '바다'는 동질적 의미가 아니고 여러 측면과 층위에 따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일반적 담론은 어민 사회를 하나의 집단 공동체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바로 마을어장(전 수산업법상 1종 공동어장)이라고 하는 공유지(共有地)로부터 도출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은 공유자산(common property)으로서 마을 경제의 주요한 생산토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 공유지는 어촌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민 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공유지를 가진 집단이 곧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듯이 공유지는 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충분조건인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공유지에 대해 권리를 가진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공동 권리를 사적으로 전유/향유(專有/享有)해가는 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구적 확산은 문화적 동질화 및 획일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난민의 발생은 더 이상 환경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재편을 요구하는 압박이 생업의 위기를 통해 문화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와 환경의 변화가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Jonathan Friedman은 이러한 변화를 지구적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함을 주장

한다(프리드만, 2009). 아이누인이 자신들의 신화, 역사, 언어 찾기를 주장하는 선주민운동이나 하와이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문화운동 등 자기문화를 직시하는 자기지향성(self-directedness)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현상이 이들 지역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지구적 변형이 가져온 지역사회의 고유 산물이라고 지적한다(프리드만, 2009: 210).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은 정치-문화적으로 파편화되는 양상 속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실은 자본주의적 동질성에 입각한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지역 어로자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변화는 지역이 외부세계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과되고 재해석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역사회의 메커니즘이 작동해 온 생활방식이 존재하고 그것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이 글은 그동안 일반화 해 온 해양어로세계의 위험담론을 제주도 잠수들의 어로문화를 통해 재조명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위험담론 외의 해양 어로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해양의 위험 담론

일반적으로 해양 위험론은 어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는 준거로 기능해 왔다. 흔히게는 어민들의 신앙과 협동도 바다의 위험과 공포에 맞서기 위한 대응 혹은 적응이라고 보는 해

석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어민 사회는 오랜 유습에 매여 있는 사회로 비춰지곤 하였다. 그동안 한국과 여러 어로 사회에 대한 연구는 자원의 이용과 분배, 사회조직의 다양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한규설, 1993; 1996; 아키미치, 2005; Han, 1976; 韓相福, 1991), 어촌 사회의 생태학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함이 없이 농(어)촌 ‘마을’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었고 어로는 농경의 부수적이거나 혹은 대비되는 생업으로서 조망되어 왔다(전경수 편, 1992: 3). 어촌은 인간과 자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농촌과 다름이 지적되어 왔다(한상복, 1976). 이외에도 해양 어로문화에 대한 다양한 민족지와 민속학의 연구보고들은 바다가 ‘조상신’으로 관념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바다를 단순히 위험한 곳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바다를 조상신 혹은 조상신의 세계로 여긴다는 것은 단지 바다를 위험한 세계로서가 아니라 섬기고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세계로 관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계보도 친족관계를 형성하고, 조상 자손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처럼 해양 신화와 의례들은 바다에 친족 관념과 성스러움을 투사하기도 하여 신화적, 역사적, 사회적 공간으로 형성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다에 내일이란 없다(바다의 불예측성)’라는 말과 같이 어로의 불확실한 특성은 신에게 의탁함으로써 안전을 기대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어민들의 의례를 단지 바다에 대한 공포와 외경심에 따른 소산으로 보는 것은 종교의 원초적 기원에 따른 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뒤르켐, 1992). 게다가 어민 사회의 다양한 관행과 제도 및 여러 조직들은 어민 사회를 ‘저발전’ 사회로 간주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최재율, 1976; 1996; 한규설, 1993; 1996; 中田 實, 1994). 하지만 사유지를 경작하는 농촌 사회와 달리 어촌에서

는 공동 어장을 이용하며 그 소득을 분배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어촌의 생활양식은 농촌의 그것과 동질적이지 않음에도 농촌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지역사회로서 인식되어 왔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어민 사회의 갈등과 문화적 변동 또한 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어떠한 공동체도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업 집단들은 더욱 복잡한 시장경제와 국가의 법적·제도적 영향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이처럼 지금의 해양문화 연구는 바다의 위험론에 기대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한정적이며, 바다의 위험성을 해양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바다에 대한 인식은 바다의 물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그것의 작동과 쓰임은 정치경제학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사회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제주도를 비롯하여 도의 주변 섬들은 지배 왕조의 정치적 감옥과 왕조의 경제적 수요를 채우는 배후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봉건 왕조를 떠받치도록 강제되어 온 정치경제학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섬들의 역사 속에 깊이 배여 있다. 이런 점에서 곧잘 섬사람들의 기질을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바라보는 한편의 시선에는 섬의 지배 왕조에 의해 양산되어 온 정치경제학과 온전하게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담론을 지지해 주는 일반적 근거가 바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섬의 생태학적 조건에서 찾아진다. 이때의 바다란 자유로운 왕래를 차단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적어도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케 하는 요소가 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조건이 사회구

조나 문화적 특성을 밝힘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나 그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문화 형성 주체의 내부자적 시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해당 문화의 깊은 해석은 요원해진다고 하겠다.

오늘날 해안 마을의 어로자들 사이의 관습과 제도, 불문을 등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비단 어로 활동에서 느끼는 위험과 공포에 대한 대응의 방책인 것만이 아니라, 바다라는 공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어민들의 실천적 행위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응/반작용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인지, 바다의 생태적 특성은 어로 사회의 어떠한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긴밀한 상관성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어민들의 주체적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어 해양어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제주도 잠수들의 어로를 예로 삼아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제주 잠수들의 어로환경

1. 요동치는 수산경제

제주도는 적도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과 수중의 화산 지형으로 다양한 해양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나잠어로(裸潛漁撈, 곧 ‘물질’)를 한다는 것은 식량을 얻기 위해 행해진 어로 행위에서 봉건시대 공납제 생산양식 하의 부역을 의미하였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잠어로는 대개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전통적 어로’이자 마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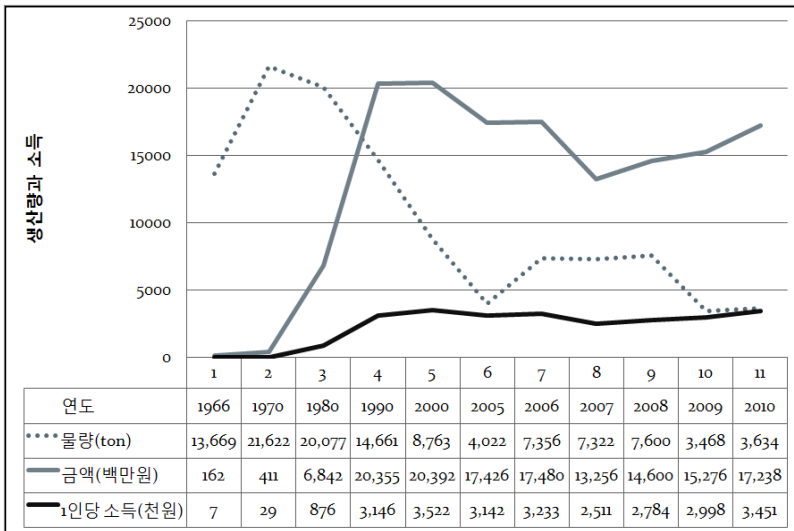
자의 권리로서 해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는 마을어업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채취되어 온 해산물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식민지 지배 체제 이후 수산물 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이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해산물의 가치가 결정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시장가치를 지녀 온 전복은 일본 잠수기 어업의 남획과 더불어 지금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자리를 대신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복을 대량 양식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대신하고 있다. 양식 기술에 의해 전복은 저가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분자기(떡조개)는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해산물이 되고 있다. 양식한 어린 전복이 오분자기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미역 또한 주요한 시장 상품이었으나 군납과 양식 성공으로 자연산 미역의 수요는 급감하여 시장성을 상실하였다(원학희, 1985). 이를 대신한 것이 소라였다. 197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소라는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되고 있는 패류이다. 따라서 일본 시장의 수요와 엔화의 가치 변동에 따라 잠수들의 어로 일정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성게나 문어는 비교적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그 까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전통적 음식 재료로 소비되는 음식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조류에서 미역 이외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온 것은 우뚝가사리이며 다음으로 톳이 중요한 해산물이었다. 우뚝가사리는 제주도 잠수들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으로 이동하여 채취하였던 해초였고 톳과 함께 주요 소비 시장은 일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잠수들이 채취하는 수산물 통계를 나타낸 것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잠수들이 채

취하는 수산물의 물량은 1970년대 이후 2005년까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잠수 인구가 감소해 온 추이와 연관하여 쉽게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생산 금액은 생산량 곡선과 달리 1990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산량과 생산 금액이 정비례 관계를 보인 경우는 2005년이며, 그 이외에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 수산물 생산 추이와 잠수 1인당 소득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과(2011)에서 제작됨

이는 크게 말해, 채취된 수산물의 생산량과 금액 간에 일정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곧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수산물의 시장가격이나 잠수들의 소득은 예측 불가능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 잠수 1인당 소득은 현재 340여 만 원으로, 이는 40년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물가 상승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소득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수산물 수출에서 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안미정, 2010). 소라라는 특정 자원과 일본 시장에 종속된 결과 자원 고갈과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였고 그 직접적 영향이 잠수 인구의 감소로 가시화 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잠수 인구의 감소에 미치는 실질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질의 노동강도와 나잡업을 천시 여기는 사회적 풍토 및 자긍심이 낮아서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산물 시장가격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데에 보다 실질적 이유가 있지 않은가 판단된다. 이미 1969년 2만 여명에 이르던 잠수 인구의 증가는 해산물 소득이 가능하였던 호황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당시 사회적 풍토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해초를 채취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분배의 규칙들은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령 툇은 어촌계원들에게 일정한 분배로 나뉘지는 반면 우뭇가사리는 계원별과 동네별로 좀 더 다양한 분배규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채취 작업에 투여된 노동의 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배하기 때문이다. 우뭇가사리 채취에서 가장 많은 분배의 몫을 받는 사람들이 잠수이며, 곧 이들이 가장 질 좋은 우뭇가사리를 채취하고 이들의 어로가 가장 큰 노동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해산물의 가치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바뀌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해산물의 가치가 등락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특정 시장에 종속된 해산물의 가격 변동이 일으키는 파장은 잠수사회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해안마을에서는 해산물의 서식과 이를 채취하는 노동 형태에 따라 정당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

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2. 벗의 의미

잠수들의 자생적 조직인 일명 잠수회(해녀회)는 어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동료 어로조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마을 안에서 잠수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져 온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바다에서 서로에게 의지해야 하는 물질 작업의 특성에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아닌지 가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추는 이들의 흔히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라는 담화에서 찾을 수 있다.

벗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제주도 잠수들의 물질 작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은, 동료인 벗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동안 그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서로에게 닥칠 조난의 위험에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다의 돌발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벗에게서 기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벗은 바다/어장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입어하는 바다는 마을의 공유자산으로서 개인의 사유지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별 어업 행위는 수산업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어 공공재에 대한 개별적 경제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어업 행위의 금지는 수산업법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잠수들에 의해 스스로 지켜지고 있는 사회적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수들은 상호 공유자산에 대한 개별적 경제 이익의 취득을 원칙

적으로 금기시하며 있으며, 만약 한 개인의 어로행위가 용인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장의 상품이 아닌 자급자족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잠수들은 마을의 공유자산을 이용하고 또 관리하는 자들이다. 마을 안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자원 이용의 권리를 가진 자들인 동시에 그들 역시 개별이 아닌 집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 자원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용의 권리는 나잡업을 하는 집단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집단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그 채취 결과가 개인의 기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인 것이다. 이처럼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는 뜻에는 마을어장이 공유자산이자 잠수들의 생산토대이므로 집단적으로 입어하는 것이다.

한편, 변화하는 어장 환경 및 불안정한 시장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점점 잠수들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 잠수의 전업은 남아 있는 잠수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무잠수복의 전파는 빠르게 제주도 나잡업자들의 어로패턴과 사회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여겨진다. 그 까닭은 전래된 새로운 잠수복에 의해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물질하게 됨에 따라 어업동료자들은 더 높은 노동강도와 채취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조사시점에서 제주시 동북쪽에 위치한 한 해안마을의 경우, 100명의 잠수들 가운데 단 8명만이 이전부터 물질을 하였던 잠수들이고, 나머지는 고무잠수복의 전래에 따라 새롭게 물질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어업 도구로서 고무잠수복의 도입은 새로운 상품(소라), 새로운 시장(일본)이 ‘개척’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나 또 한편 그로 말미암아 동료 집단의 구성을 빠르게 교체시켰다. 1970년대와 달리 2010년의 시점은 자원의 고갈과 시장의 불안정 등 어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새로운 벗이 나타날 만 한 과거와 같은 ‘호재(好材)’는

아직 없다. 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해, 벼이 없다는 것은 곧 물(바다)에 들어갈 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물질의 이득이나 장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결국 물질할 까닭이 없어지는 것이다. 곧 잠수들이 벼을 중요시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어로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물질의 사회경제적 이점을 강조하고 그것의 지속을 바라는 담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대의 단절: 감소와 고령화

2010년 말 기준 제주도 나잠업자인 잠수의 수는 4,95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수산과, 2011). 이 수치는 현재 어로작업을 하는 잠수들을 말하며, 때때로 지금도 어로를 하는 잠수들을 합하면 1만 여명에 이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보면 근소하나마 제주시에 더 많은 잠수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1969년 2만 여명의 잠수 인구는 1970년 1만4천 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거듭해 왔다. 2000년 5,789명이었던 잠수는 2010년 4,995명으로 감소하여 10년 사이에 794명이 감소하였다.

잠수 인구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말미암아 잠수가 자연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위기와 긴장이 때때로 지역사회의 화제로 등장하였다. 나잠업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고령이라는 점과 더불어 모두 기혼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한국 나잠업자들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표 1>과 같이 60세 이상의 잠수가 전체 잠수 인구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이 어업의 소멸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표 1> 제주도 잠수의 고령화

연령 구분	30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명)	-	2	123	954	1,752	2,164
비율(%)	-	0.1	2.4	19.1	35.1	43.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과(2011) 참조.

물질이 아닌 다른 어로 방법의 등장은 그에 따른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어장에 다수의 잠수보다 소수의 스쿠버가 어장 관리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종종 점쳐지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스쿠버에 의한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이 또한 새로운 ‘자연스런’ 어로기술의 도입이라고 한다면 마을 경제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잠수 인구의 감소는 현재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경향을 반영한다. <표 2>는 제주도내 6개 수협별로 집계한 연령별 잠수의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제주도내 수협별 · 연령별 잠수인구

구 분	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4,995	2	123	954	1,752	2,164
제주시수협	1,891	-	61	390	619	821
서귀포수협	834	1	4	121	338	370
한림수협	742	-	25	137	236	344
추자도수협	122	-	1	25	58	38
성산포수협	922	1	15	174	330	402
모슬포수협	484	-	17	107	171	18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과(2011) 참조.

과거 바닷가에서 놀다가 나잠업을 하게 되었다는 ‘자연스러운’ 인력 재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딸에게 물질을 시키지 않겠다는 잠수들의 보편적 인식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에 개입된 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 잠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 곧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생의 대물림’으로 표현되는 계급의 재생산 차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세대 계승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서 제주 사회의 문화 변동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V. 어로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권리

이 장에서는 어로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생활방식의 권리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한 해안마을과 일본의 한 해안마을을 사례로 삼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들 지역은 유사한 어로자들(잠수와 아미)이 있다는 점 외에도 지역 중소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으로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어로조직의 편제와 활약, 어업경제를 주도하는 남녀의 역할이 다른 면도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 있는 어촌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고 또 대응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다양함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통적 조직의 생산성

어로조직의 다양하다는 것은 단지 영세함만이 아니라 어획할 수 있는 수중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어획 행위가 과도할 때 수중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어획을 따지는 것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이다. 특히 어떻게 어획하는가라는 어로 기술은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대량 어획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어로 생활의 변동을 초래하여 문화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어로조직의 중요성은 생산량에 기초한 양적 생산성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생산성에 의해 그 가치가 조명되어야 한다.

한국 수산업법에 의해 현재 마을어장의 우선적 권한을 가진 주체는 어촌계이다. 마을마다의 어촌계원들은 지역별로 구성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자신이 속한 마을에 한정하여 자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을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촌계 안에서도 이른바 ‘물질’을 하는 잠수들만이 어장에서 입어(入漁)가 가능하며, 이들 나잠업자는 어촌계 조직 산하에 잠수회(潛嫂會, 일명 해녀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잠수회는 마을 안팎에서 공식적 활동을 하지만 법률상 공식적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촌계가 1962년 수산업법에 의해 마을어장의 공식적 면허 주체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제주도에서는 잠수들이 소규모의 어로공동체를 형성하여 어업을 행해 왔다. 이들은 해안가에 작은 휴식 공간(‘불턱’)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어업패턴과 다양한 관행과 규약을 만들어 행해왔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어로를 하고 또 공동의 공간과 자원관리를 행하는 등 자율적 어업조직을 형성 운영해 왔으며, 그것은 어촌계 내에서도 잠수회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어촌계 산하 조직으로서 종속적이기보다는 자율적 어업 집단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 해안마을 잠수회는 마을 단위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어장에 하나의 잠수회가 존재한다. 공식적 영역에서 이들 잠수회가 외부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어떤 활동을 벌이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주의 성산포와 사계리 잠수들은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해산물 판촉 활동을 전개하지만, 그것이 수산물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반면 잠수들은 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어장의 순환적 이용과 선택적 자원 채취 및 어장 내 금지구역을 두고 여름철 어장 지키기를 하는 것 등이다. 잠수들의 어로법의 가치는 낮은 생산성에서 시작되며 해산물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잠수회의 활동들도 대량 어획할 수 없는 전통적 어로법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마을 안에서 볼 때, 지금의 마을 어로조직은 단순하지만 과거에는 이보다 많은 소규모의 어로조직들이 있었다고 한다. 한 예로 제주도 김녕리에서는 마을 남자들이 몇 개의 계(“접”)를 구성하고 물때에 맞춰 돌아가며 멸치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 소규모 어로조직들은 사라졌다. 멸치 떼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오지 않는 데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이유는 해양 생태의 변화와 함께 대량 어획의 기술에 의해 특정 지역에 어업이 편중되고 다른 지역은 쇠퇴하는 수산업의 규모화

에서도 그 영향을 감안해 볼 수 있다.

제주도와 달리 보다 많은 어로조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한 어촌을 보기로 하겠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주 잠수와 같은 나잠업을 하는 남녀 아마(海女, 海土, Ama, あま)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宮本常一・中村由信, 1978; 上村角兵衛, 1985; 大喜多甫文, 1998).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미에켄 토바시 토우시지마(三重縣 鳥羽市 答志島)의 토우시(答志)는 제주와 같이 나잠업을 하는 해녀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 남성들로 조직된 소규모 어로조직들이 많다. 어업법상 일본은 한국의 수산업과 같이 중앙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편재하고 마을 단위까지 어협의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음에도 마을 안에서 실질적 어로 활동을 벌이는 것은 이들 작은 어로조직들에 의해서이다.

2005년도 이 지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 마을 안에는 ‘업자’(業者)라고 부르는 다양한 어로조직들이 있다. 업자는 고기와 해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취하는 소규모의 어민 집단을 말한다. 각 그룹은 회장과 부회장, 회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또 다른 그룹에 속할 수도 있다. 이처럼 소규모 어로조직은 이 마을에 19개가 있었다.¹⁾

그런데 마을 인구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어로조직의 구성은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토우시 마을 인구는 총 1,301명(남자 598명, 여자 703명)으로 344세대가 있으며 여성 인구가 많다.²⁾ 어업이 가구당 어로권을 부여해 온 관행에 비춰 볼 때, 300여 세대의 사람들(주로

1) 업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 타찌우오(太刀魚, 갈치), 타코쓰보(たこつぼ, 문어잡이 항아리), 아지쓰리(アジ釣, 전갱이낚시) 키수아미(キス網, 보리멸그물), 에비히꾸(エビ曳, 새우잡이), 후구아미(ふぐ網, 복어그물), 사바쓰리(サバ釣, 고등어낚시), 잇본쓰리(一本釣)¹⁾, 나마꼬카케(なまこ掛, 해삼걸이), 若布(미역), 海女, 遊漁船 등이다.

2) 토바시청의 홈페이지 <http://www.city.toba.mie.jp> 자료 참조.

남자들)이 19개의 어로조직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것임을 말한다. 이를 제주도의 김녕리와 비교해 볼 때, 김녕리는 2010년 기준 마을 인구가 총 2,969명(남자 1,440명, 여자 1,529명)으로 1,168세대가 있었으며 역시 여자가 많은 마을이다. 김녕리의 마을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마을 내 어로조직은 어촌계 산하의 어부회와 잠수회에 그치며 이는 제주도 어느 해안마을이나 일반적인 경향이다.³⁾ 이처럼 어로조직이 비교적 단순한 데에는 제주도의 해안마을이 전업적 어촌이 아니라 농사를 병행하는 어촌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양한 어로조직을 창출하는 이 마을의 문화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김녕과 달리 토우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을 경제의 기반이 어업인 토우시에서 다양한 어로조직이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생산 활동 공간이 다양하게 창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어로조직이 활발한 것은 마을 출신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로조직의 성원으로 충원되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네야코(寢室子)’라 불리는 관습은 마을 내 유지들이 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⁴⁾ 양부모(네야오야, 寢屋親)와 수양 자식의 관계로 설정되는 네야코는 가족 개념에 기반 하여, 양부모가 마을 내 청년들의 생계기반 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마을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청년들은 또한 양부모의 조언을 듣고 어업인으로 성장하며 이 관계는 평생 동안 이어진다(안미정, 2011).

3)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jejudb.jeju.go.kr> 자료 참조.

4) 네야코란 중학교를 졸업한 남자아이들이 마을 내 양친이 있는 집에서 밤에 함께 잠을 자며 부모자식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아이들을 네야코라 하고 이러한 제도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로조직과 관습이 있다는 것은 비단 어촌 사회가 전근대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논리를 전통 속에서 찾아 실천하는 맥락이 있다. 또한 어업 세대의 지속성은 다양한 어로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도모되며 어촌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자 그 문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제주의 잠수 사회와 비교하여 알 수 있다.

2. 생활방식의 문화적 권리

제주도 잠수들의 어로문화는 비단 어로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해안마을 사람들의 생활방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 잠수의 경우 이들의 어로법인 나잠은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성격으로 변화하였으나 어로행위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몸의 기량에 의지하는 어로법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로기술의 변화는 생산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 해안마을의 사회경제는 물질이라는 어로법과 무관하게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잠수들은 그들의 물질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장의 풍요와 지속적 이용을 위한 문화적 논리를 그들의 신화와 의례 속에서 펼쳐 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잠수굿인데 굿에서 잠수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어로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감사하는 다양한 연행을 벌인다. 이때의 여신은 '조상신'으로 관념하는데 이는 바다를 매개로 해신과 잠수가 신화적 친족관계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잠수들의 어로가 유지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잠수들이

매년 벌이는 굿이 어로조직의 결속과 더불어 어로권을 상징하는 의례로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들의 어로가 수중에서 행해지듯 잠수들은 바다의 여신에게 정성을 들여 때때로 음식을 바쳐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가내에서 개별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잠수회 성원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의례를 펼치기도 한다. 잠수굿은 해상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비는 잠수들의 굿으로(강소전, 2005), 이 굿에서 잠수들은 해안에 씨를 뿌리는 연행을 펼치며 그로 말미암아 어장이 풍요해지기를 기원한다. 그 씨앗을 풍요롭게 가꾸어 주는 것은 그들의 조상신인 ‘요왕할망’이다. 씨앗을 뿌리는 자손과 이를 키워 주는 조상의 관계를 통해 잠수들은 자신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상품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조상이 내게 준 것으로 관념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어장의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할 때 자손인 잠수의 자원 권리를 신화적으로 풀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안미정, 2006).



[사진 1] 씨앗을 뿌리는 잠수
(2008. 4.13, 잠수굿에서)



[사진 2] 춤추며 방어를 잡아먹는 사자
(2009.2.11, 토우시 마을 축제에서)

이런 점에서 물질은 오래 전의 어로법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한다. 해안에 씨앗을 뿌리며 신을 흥겹게 하는 잠수들의 굿은 물질을 하나의 어로법이 아니라 잠수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의 근간임을 제시하며, 그 권리를 상징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일본의 토우시의 경우에도 마을 남성들은 네야코(寢室子)라는 제도를 통해 마을의 청소년들을 상호 보호하고 육성하는 확대된 가족의 개념 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⁵⁾ 이 역시 오래된 지역 사회의 관습으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네야코 제도는 토우시를 지지하고 있는 원동력으로 지적되고 있다(澤入友美·平山妙子·鄭信智 외 7인, 2005: 84; 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 42-43). 이처럼 어로 사회의 여러 관습들은 어로 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문화적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어로 사회는 해양의 위험성에 매여 있는 사회도 아니며 그대로 내맡겨지거나 생산기술과 시장 변동에 그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을 어로법과 어로조직을 통해 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외부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방식을 바꾸거나 강제되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 역시 그들의 문화적 권리라 할 수 있다. 제주 잠수들이 굿을 하며 해마다 해안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나 토우시의 어부들이 사자에게 흥을 북돋아 방어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 등은 풍요를 바라는 의례적 퍼포먼스이다. 또한 이러한 의례는 어로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화하는 장이기도 하고 정치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5) 어로조직인 업자의 구성원들은 네야코라는 마을의 오래된 관습에 의해 이어져 온 사회조직에 속해 있다. 2009년 기준 토우시에는 14개의 네야코가 있다.

도 한다. 따라서 어촌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생활세계를 창조해 가는 생활 방식의 권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 어로의 위험성에 기초한 담론들은 어로 사회의 일면을 담고 있을 뿐 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틀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양 위험론은 어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와 동기를 설명하는 준거로서 기능해 왔으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 외에도 어민들은 다양한 사회적 규칙과 권리들을 그들의 어로조직과 문화적 장치들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제주의 잠수들은 자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적 자원의 재생산 및 지속적 어로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우시의 어부들은 어로조직을 다양화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젊은 노동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또 다양한 어업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잠수들이 그들을 해신의 자손으로 추상화 하여 어업의 지속적 권리를 상징화 하고 또 씨앗을 뿌림으로써 풍요에 대한 실천적 행위를 연행한다면, 토우시에서는 네야코를 통해 마을이 마을 청년들을 돌보는 문화를 창조해 왔다. 잠수들이 바다의 여신을 조상으로 관념하여 의례를 거행하거나 토우시의 중년 어부들이 마을 청년을 수양아들로 삼는 관습은 모두 친족 및 가족 제도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적 논리를 보여준다.

기술한 바와 같이, 해산물을 둘러싼 시장은 불안정을 거듭해 왔으며, 이와 함께 일본 시장의 종속, 해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생태적

변동과 자원 감소 등은 잠수들의 어로 포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벗이 돈을 벌어 준다.”는 것이다. 한 달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물질이 아닌 다른 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잠수들의 전업으로 말미암아 남은 잠수들의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는 의미에는 잠수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봄으로써 물질하려는 사람이 없는 사회적 상황, 그리고 산소통 없이 일하는 그들의 어로법이 주변 동료와 상호 의존해야 하는 조건을 함축하고 있었다면, “벗이 돈을 벌어 준다.”는 말은 물질을 포기한 동료의 부채를 경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잠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해양 어로의 위험성과 어민들의 협동, 공동체성은 모두 생산의 토대인 어장/바다와 연관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권리로 치환하고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잠수들이 물질이라는 어로법을 지속하고 벗을 강조하며 어장 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성 등도 그들의 어로 권리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토우시의 어부들이 한정된 어족 자원을 풍성히 할 수 있는 것도 어로조직을 다양화함으로써 소규모로 다양한 시장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그들의 전통적 관습에 기반하여 젊은 노동력을 충원함으로써 마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두 어촌의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의 어업 생산을 지향하고 경쟁적 생산 구조 속에서 서로가 협력자 및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벗과 네야코는 경쟁하나 또한 협력하는 어민들의 호혜적 생활방식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어업자원이 고갈하거나 외부 시장 변동의 여파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문화적 전통에 따라 생활방식의 유지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이에 지속적 자원의 재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에 대

응한 다양한 실천은 곧 자기 문화의 정체성과 권리를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전, 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아키미치 토모야, 2005, 『해양인류학』, 이선에 역, 민속원.
- 안미정, 2006, 「바다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전통의 정치: 제주도 잠수마을의 나잠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39(2), 307-347.
- _____, 2010,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 2011, 「지구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적 실천: 한일 두 지역의 해양문화 비교연구」, 『동북아문화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7, 205-223.
- 에밀 뒤르켐, 1992[1916],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민혜숙 역, 민영사.
- 원학회, 1985, 「제주 해녀어업의 전개」, 『지리학연구』 10, 179-198.
- 전경수 편, 1992,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집문당.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과, 2011, 『잠수어업인 현황』(2010년 말 기준) 비간행 자료.
- 조나단 프리드먼, 2009, 『지구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당대.
- _____, 1996[1991], 『韓日農漁村의 社會學的理解』, 裕豐出版社.
- 한규설, 1993, 『공동어장과 어촌』, 참한.
- _____, 1996, 『어촌경제구조의 관찰』, 참한.
-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8, 87-90.
- 宮本常一・中村由信, 1978, 『海女』, マリン企劃.
- 大喜多甫文, 1998, 「わが國のあまの分布とその増減に關する一考察」, 『漁業經濟研究』 24(2).
- 上村角兵衛, 1985, 『海女とみつもん』, 水神タイプ.
- 中京大學社會學部・名古屋市立大學人文社會學部國際文化學科, 2005, 『地域とくらし 第1集: 答志島 調査報告書』.
- 中田實, 1994, 「部落の共同體的性格」, 『志摩の漁村』 愛知大學綜合郷土研究所研究叢書 9, 牧野 由朗 編, 名著出版, 133-154.
- 澤入友美・平山妙子・鄭信智 외 7인, 2005, 「海女という生きかた: 答志島實習報告」, 『地域研究年報』, 第2號, 83-110.
- 韓相福, 1991, 「農漁村の通婚圏と初婚年齡」, 『日韓漁村の比較研究』, 行路社.

Han, Sang-Bok, 1976, *Korean Fisherma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토바시청 홈페이지, <http://www.city.toba.mie.jp>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jejudb.jeju.go.kr>

Abstract

Maritime Discourse and Rights of Lifeway

An, Mi-Jeong*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maritime society by different aspect from the risk discourse. The risks of fishing is functioned to describe a variety of behaviors and motivation in the maritime society. However the fishermen carry out social rules and the rights by implementing various activities and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equipments as well as risk control strategies. In the case of Jeju women divers(Jamsu), although they are not capable to respond to the world market economy systematically, they have been managed the resources and continued sustainable reproduction. As an example, Tousizima fishermen in Japan have been generating stable income and maintain young workers by diversification of fishing organizations in urbanization flow. Jeju women divers symbolize sustainable fishing right through the ritual as a descendant of maritime god, and sowing activities meant for the richness. Tousizima fishermen have been creating culture of young people care through the customs(Neyako). This fishing community culture shows the cultural relationship that is based on family and kinship. When the cultural tradition has been forced by an external change, it is people's right to refuse or adapt the changes. Not only diverse fishing community culture is a traditional property but also it is a right of way of

* Korean Maritime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life for a creating their life-world by themselves.

Key Words: Maritime, Fishing, Discourse, Jeju Women
Divers(Jamsu), Tradition, Lifeway, Cultural Rights

교신: 안미정 606-70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E-mail: gasiria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1. 8. 5.

수정완료일 2011. 8. 24.

게재확정일 2011. 8. 26.